

교 회 례 표

신앙원 예배
친구인로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아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골로새서 1:21)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3 충헌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지난 수요일에 메시지

배 반

“열 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 주고
대제사장들에게 기해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 줄 기뻐함을 찾다”(막 14:10~11)

배반은 인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벌어졌던 고통스러운 비극이며, 인간의 타락과 부패함을 여실히 입증하는 증거이다. 실로 그러하다! 인간은 에덴의 동산에서 자신을 만든 창조자를 배반한 이후로 끊임없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알듯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롯 유다가 저지른 것처럼 위험하고 끔찍스러운 배반은 결코 없었다. 그의 배반이 그토록 심각한 이유, 아담과 하와의 타락보다 심각하고 이스라엘의 배반보다 더욱 부패한 이유는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넘겼다는 데 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여러군데 인간이 되고자 했던 유다가 나 심각하지를 깨닫게 하며, 성경은 이것을 숨김없이 고발해 버렸다.

그리스도의 열 두 제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던 가롯 유다! 그는 예수께로부터 신뢰를 받고 돈 값을 받았었다. 그러나 그는 예수께서 가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에 결코 동행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계산된 자신의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아니, 그보다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데 온통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으리라! 그래서 유다는 유함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던 한 여인의 헌신마저도 아주 무가치하게 여겨버리기도 했다. 입술로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마음으로는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채우려는 탐욕을 외치고 있었다(요 12:6). 이러한 그의 위선적인 언급은 그리스도를 팔아넘길 때에도 드러났다. “골 예수께 나야와 팔미여 안행하시옵나”(막 26:49). 그는 자신이 직접 예수를 죽을 가운데로 몰아넣고서는 “평안”을 전하는 자처럼 마귀적인 연극 배우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주께서 인간을 이루시는 그 날 밤에 유다는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기는 가장 비극적인 배반의 길을 걷고 말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배반한 유다는 무책임한 자였다. 그것은 그의 가슴이 ‘질투’와 ‘야망’으로 불타오른 결과였다(요 12:13, 13:28).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신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만족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경고한다(골 2:8). 진실로 그러하다!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에게서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영원한 어린양으로 인식하는 것만큼 올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눈도 없다. 진실로 안타깝게도 너무나 쉽게 예수를 배반한 가롯 유다(막 14:10)! 그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생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막 9:35), 자기를 낫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마 23:12) 주님의 교훈을 이해하지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였다.

한편 가롯 유다는 무책임할 뿐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쟁이기도 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가 향유를 붓던 여인을 비난한 것은 자신의 주머니로 돌아와 일정한 액수를 차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결국 돈에 대한 추구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온 삼십에 팔아넘기게 만들었다(막 26:15). 그러므로 돈에 대한 탐욕만을 위할수라는 것은 없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경고한다. 돈은 일반 악의 뿌리요(골 3:6),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한다(골 3:5).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의 삶에 있어서, 이 땅의 우상숭배자들처럼 재물을 요구하는 기도와 부귀를 추구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가롯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예수를 따랐던 지난 시간이 아깝고 후회스러웠으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계산적인 생각 때문이었으리라. 달리 말하자면, 유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의 목표를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늦게서 예수를 팔아넘겨서 이익을 챙기려는 실리적인 길을 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들(마 7:15),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의식과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골 3:1~2).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상실되고, 그리스도는 한 배척당하고 있다.

유다의 배반 이후로 2천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을 가운데로 내보내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재현된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들고 대모제를 향한 바울의 권고를 듣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급하며, 교만하며, 행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갑자기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버림, 조급하며, 자고하며, 패악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서부터 사하여 할 절대적인 필요도 있다(딤후 3:1~5).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쓴 값을 받아 마시라. 그의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라. 그래서 배신의 잔을 마신 가롯 유다의 길에서 돌이킨 후에,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의 잔을 마시라!

復活의 만남



그대 되옵고 싶어
어제도 굴뚝지 못했습니다.

“랍니!”(Rabboni!)
옥합(玉盒) 깨뜨려
당신 발에 붓던 그날(요 12:3),
그대,
되색(褐色)하지 않을 사랑
대려온대 말없이 새겨 놓으시고,
그 사랑
내 안에서 변함없고 여전히
지난 날의 부끄러움
먼 훗날의 두려움
낙력히 이기게 하시나이다.

부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눅 24:6)
부활절 칸타타(보라 부활의 구세주, 조 E. 파크), 금일 찬양예배 시간에

“인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그 많으신 은사로 그대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골 6:5, 뱀진 1:3).
베드로의 교백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산 소망이 있게 하며, 바울의 교훈대로 그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그와 영원히 연합한 자가 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함으로 그대 이상 부활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하늘에 오르사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앉으셨음을 믿는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를 향한 찬양의 이유를 깨닫게 된다. 오래 거룩한 시온을 향하는 순례자들이며 그의 빈 무덤에서 그가 살아났다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죽음의 슬픔을 물리치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홀로 하나님인 구원의 이름을 높이 부르자.

보라, 부활의 구세주!
보라, 부활의 주님!
영원하신 그분의 통치를 하늘 높은 곳에서 찬양하라!
하나님의 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분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 불의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천양을 받으시며 하늘과 땅의 가장 높은 곳에 앉으셔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Joe E. Parks)



David's Confession (Psalm 16:8~11)

"...For You will not abandon my soul to Sheol: Neither will You allow Your Holy One to undergo decay. You will make known to me the path of life; In Your presence is fullness of joy; In Your right hand there are pleasures forever"

In this song of trust, David confesses that he will trust the Lord to preserve him in death. His words are prophetic. They are illustrative and predictive of the Messiah. Initially, they refer to David's own experience, but the ultimate fulfillment is only in Jesus Christ. Thus, David's words about his own deliverance from death, or more probably about his own future resurrection, find its complete fulfillment in Christ's deliverance from death by resurrection. Both Peter and Paul recited from these Old Testament verses in referring to the resurrection of Christ (see Acts 2:25-28; 13:35). They realized that David was speaking about the prophecy of the Resurrection. They know that Jesus was raised from the dead. They showed the people that Jesus must be the Messiah. In essence, they proved the fulfillment of this Old Testament prophecy. As such, when we look at David's confession as a prophecy concerning the Messiah's daily life and experiences for the future, we can see how the power of God's grace works in our lives.

When Jesus walked this earth, He always walked in the presence of His Father. At all times He sought, listened, and obeyed God's will. He continually set God before Him (v. 8). He came to wipe out the lies and deceptions that people used to distort and damage the Word of God. He came to make this earth like the kingdom of God. Paul tells us, "We are destroying speculations and every lofty thing raised up against the knowledge of God, and we are taking every thought captive to the obedience of Christ" (2 Cor. 10:5). Christ knocked down the barriers of evil, so that our thoughts could be straightened out to obey God. He said, "Blessed are those who hear the word of God and observe it" (Lk. 11:28). Jesus received God's blessings because He continually set God before Him; He always listened to and obeyed His Father. Isn't it wonderful that whoever does these same things are also blessed?

Sadly, there are those who don't put God first, who don't listen to His word, who refuse to obey Him, or follow His will. Jesus warned the top religious leaders of His day, "Woe to you Pharisees! For you love the chief seats in the synagogues and the respectful greetings in the market places" (Lk. 11:43). These people loved sitting in God's house, but not listening to God's word. They were more interested in human voices. Their disobedience caused men to break the law and defile themselves (Lk. 11:44-49). Jesus' life was all about His Father's will, "For just as the Father raises the dead and gives them life, even so the Son also gives life to whom He wishes" (Jn. 5:21). Jesus said, "You search the Scriptures because you think that in them you have eternal life; it is these that bear witness of Me" (Jn. 5:39). Without Christ there is no life. "For I have come down from heaven, not to do My own will, but the will of Him who sent Me. This is the will of Him who sent Me, that of all that He has given Me I lose nothing, but raise it up on the last day" (Jn. 6:38-39). Amen! Jesus always placed God before Him; He always followed God's direction; He always did God's will.

When Jesus walked this earth, He always put God at His right side, "Because He is at my right hand, I will not be shaken" (v. 8). In the Bible, the term "right hand" describes a position of a protector or defender (see Ps. 109:31; 121:5; Is. 41:13). Its witnesses use this

term to really confess God's importance, His high position in their lives. If we want to follow Jesus, we must have God at our right side. We have to put God first. We have to put Him in the best place. For like Jesus, we know that in God's right hand there is ultimate security (v. 9), and "there are pleasures forever" (v. 11).

When Jesus walked this earth, He always walked with joy, peace, and praise, "Therefore my heart is glad and my glory rejoices" (v. 9). Because Jesus always walked in the presence of God, He always experienced contentment, "In Your presence is fullness of joy" (v. 11). He knew the secret of God, "I praise You, Father, Lord of heaven and earth, that You have hidden these things from the wise and intelligent and have revealed them to infants" (Mt. 11:25). The humble can understand God's grace because they are truly honest in front of God and willing to listen, but not the proud. When Jesus was born, most of the theologians and bible teachers didn't know, but the shepherds, Mary, and the Gentile wise men were so happy. The angels praised God singing,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men with whom He is pleased" (Lk. 2:14). In God's presence, His chosen receive the peace and joy that passes all understanding.

When Jesus walked this earth, He always walked with an eternal future, "For you will not abandon my soul to Sheol; Neither will You allow Your Holy One to undergo decay. You will make known to me the path of life" (vv. 10-11). Jesus died to take our sins so that we might have God's righteousness, "He made Him who knew no sin to be sin on our behalf, so that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 (2 Cor. 5:21). Amen. Because His sinless life was in front of God, He became the eternal way, truth, and life. As such,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Him (Jn. 14:6). "For it was fitting for us to have such a high priest, holy, innocent, undefiled, separated from sinners and exalted above the heavens" (Heb. 7:26). Jesus made the way possible for us to have an eternal future with God. His life became the way, truth, and eternal life because He lived a holy life in the presence of God, because He rejoiced in God's will, and because He held tightly to God's truth.

Listen my dear friends, your mouth reveals your thoughts and shows who you are. When you talk, people can see where you're coming from. If you say you believe in Jesus, yet center your talk on earthly concerns, then something is not right. If you truly felt the presence of God, if He was first in your life, if you really thought He was at your right side, then the joy, peace, truth, eternal life, and an eternal future of knowing Him would flow from your mouth, not stupid and irrelevant nonsense. His Spirit should always be reflected and present in your speech.

My friends, David's confession is a prophecy about Jesus' daily walk and experience in the presence of God. After Pentecost, these amazing bible verses become our true confession. Through faith and obedience in Christ, we become God's servants. I'm asking you, is your daily life and experience set in the presence of God? Is God at your right side? Is the joy, peace, and praise that comes from listening to and obeying Him on your lips? Are you living your life with an eternal future? I hope David's confession is your confession. **h**

다윗의 고백 (시 16:8~11)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찌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김성관 목사

부활에 대한 예언

이 신뢰의 찬송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음부의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은 예언적입니다. 그 고백의 말들은 메시시아에 대하여 예언하며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다윗 자신의 경험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나, 미래의 부활에 관한 다윗의 언급은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언급할 때, 구약의 이 구절들을 인용하였습니다(행 2:25~28, 13:35). 그들은 다윗이 부활에 대하여 예언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틀림없는 메시시아임을 사람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이 구약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윗의 고백을 메시시아인 예수께서 살아가실 매일의 삶과 결실 경험들에 대한 예언으로써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앞자리에 모심

예수께서 이 세상의 길을 걸으실 때, 그분은 언제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임재하심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였고, 그분의 음성에 귀기울이었으며,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앞자리에 하나님을 모셨습니다(8절). 주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고 순종을 입히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의 거짓과 속임수를 찾아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이물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고후 10:5). 그리스도는 악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눅 11:28).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을 자신의 앞자리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은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름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사신 날 동안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왜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눅 11:43).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싫어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음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불순종은 사람들이로 하여금 율법을 깨뜨리게 하고, 그들 스스로를 더럽히게 만들었습니다(눅 11:44~49). 예수의 생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영생을 자들을 살리시니라”(요 5:21).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회가 성령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고히려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 그리스도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요 6:38~39). 아멘! 예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앞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셨습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라 하나님을 뜻을 행하셨습니다.

언제나 우편에 모심

예수께서 이 세상 길을 걸으실 때, 언제나 그의 우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라 내게 아무도 되지 아니하도다”(8절). 성경에서 “우편”이라는 용어는 보호자나 아버지의 지위를 묘사하는데 사용됩니다(시 109:31, 121:5, 사 41:13 참조). 그 증거로 이 용어는 하나님의 중요성과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다는 것을 증명할 때 사용됩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을 따르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우편에 모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좋은 위치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이 가장 안전하며(9절), 그곳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11절).

기쁨과 평강과 찬송의 길

예수께서 이 세상 길을 걸으실 때, 그는 언제나 기쁨과 평강 그리고 찬양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 하리니”(9절). 예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걸으셨기 때문에, 언제나 만족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11절). 주님은 하나님의 비말을 아셨습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시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 하나이다”(마 11:25).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쁘게 듣고, 고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신하들과 왕과 성경지식자들 그 분을 알지 못했지만, 목자들과 마리아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박사들은 그 분을 알고 매우 행복했었습니다. 진실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눅 2:14).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

예수께서 이 세상 길을 걸으실 때, 그는 언제나 영원한 미래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찌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10~11).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5:21). 아멘.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게 나아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요 14:6).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 거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안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히 7:26).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미래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생애가 길과 진리와 영원한 생명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진리에 견고하게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따라 말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다(9절).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의 대화의 중심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잘못될 것입니다. 또한 만일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편에 모셨다고 생각한다면, 기쁨과 평강과 진리와 영원한 미래와 하나님을 아는 영원한 미래가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흘러나올 것이며, 결코 어리석거나 거짓이 없는 무의미한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로 성령은 언제나 여러분이 해야 할 말에 영향을 미치며, 해야 할 말이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매일 걸으시고 경험하셨던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이러한 놀라운 성경 구절은 우리의 찬된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과 경험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우편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 순종에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평강과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영원한 미래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실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A**

이번주 출발하는 선교팀 및 기도제목

몽골

17교구 15지역 단기 선교팀

(4월 21일~5월 2일)

아르발가이지역



1. 몽골 아르발가이는 선교사가 잘 가지 않는 지역이며, 그곳의 사람들을 대다수가 라미불교를 믿습니다. 그 땅의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땅이 되게 하소서.
2.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3. 모든 팀원들이 성령으로 하나되어 불광과 오애없이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4. 팀원들 모두 하나님께 주시는 선교의 비전을 품고 단대이 감람가이 하소소서!

스리랑카

5교구 3지역 단기 선교팀(4월 21일~5월 1일)

콜롬보, 니곰보, 누와라엘랴리, 캔디 지역

1. 스리랑카의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2. 팀원들이 자신이 직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만을 전하게 하소서.
3. 기도과 말씀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사역기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㉔

올해부터 각 교구 지역장을 중심으로 단기 선교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주간총회는 단기 선교팀을 이끌 각 교구 지역장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저희는 '지상의 천국'인 방글라데시를 향해 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인 방글라데시가 지상의 천국이라고 하니 모두들 의아하게 생각하셨겠지요. 그러나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 1억 5천만명이 살고 있고, 그들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황금밭이나 지상의 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방글라데시 중에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인 조소르(Jessore Benepol)로 갈 예정입니다. 다카에서 목적지까지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좀 고생스럽더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고자 버스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속소는 가서 정할 것인데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민박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자 저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기도원에 올라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외에는 저희를 도울 자가 없기 때문이지요. 기도를 하니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역자도 없이 저희의 짧은 언어로 말씀을 전할 생각을 하면 과연 우리의 방글라데시가 통할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권사님이 경기도 광주에서 가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만난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방글라데시어로 전하는 말씀을 알아들었고 교회에 나오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6개월 중 4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가 '그리소할' 계절인데, 가장 무덥고 습해서 정말 힘들 때라고 합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방글라데시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조소르(Jessore Benepol)에서 주님께에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2. 인간의 지혜와 경험, 세상의 지식이 결코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3.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종인으로서 오직 복음만 외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4. 개척장식 담고 참기 어려울 때입니다. 팀원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승두섭
7교구 6지역장

(원정길 기자)

십자가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 7:13, 14).

3월22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외선부 전도팀은 총현교회를 떠나서 경기도 포천군 법원리를 향해 달려갔다. 그곳 전도교회 장소에는 오후 6시가 다 되어서야 도착했다. 그 곳 법원리는 주일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총현교회 외선부에 출석하고 있는 4명의 중국인 형제들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또 다른 세 형제들을 초청해서 전도집회에 참석했다.

그들과 함께 중국어로 된 찬송을 불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리고 다음날 일곱명 전원이 외선부 집회에 참석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들 4명이 그렇게 먼 거리를 어떻게 주일마다 총현교회까지 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들은 아무도 승용차를 갖고 있지 않았고, 법원에서 총현교회까지 직행할 수 있는 교통편도 없다. 이들은 최소한 세 번 정도 차를 갈아타야만 교회까지 올 수 있다. 물론 같은 중국인들을 만나거나 서울 구경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까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한 달에 한 두 번이지, 주일마다 그렇게 하려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 대답은 "그것은 당신들이 먼저 끊임없이 우리가 있는 이 먼 곳까지 찾아와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렇다. 외선부 교사들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왔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많은 시간을 희생해야 했으며, 물결과 자신을 온전히 희생해야만 가능했던 일이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그 길은 결코 쉽게 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이었다. 십자가의 길이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던 것이다. 총현교회에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된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를 찬양한다.

김집현 목사, 외선부 지도

점점, 우리는 복음의 사도 ㉕

많은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와
주님의 역사하심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간증과 각오들을 풀어놓는다.
그들의 간증과 각오들을 통해 복음의 소명을 다시 돌아보고
올 한 해의 단기선교를 계획해 보자.

단기선교단 교생을 무릅쓰고 험악한 지역을 헤쳐가며, 그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를 갖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상상하고 있었다.

복음을 들고 생김새도 언어도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 그런 모험을 한다는 데 호감이 가서 나도 한 번쯤 가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던 중, 대학부 선배님의 권유로 작년 12월28일부터 1월6일까지 불가리아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다. 가족들의 반대도 못할 줄 알았는데, 떠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 우리팀은 선교지를 터기로 정하였고 기도하고 언어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불가리아로 선교지가 바뀌는 바람에 마음이 불안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곧 알았다. 과거에 불가리아가 터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군데군데 터키인들이 집시촌을 이루고 있어서, 그 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던 터키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불가리아로 바뀌게 되어 당혹스럽고,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지라 생각했었는데, 불가리아에서의 집시촌 사역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켜셨음을 알게 되었다. 선교지에서 온해도 참 많이 바쁘고 배운 것도 많은데도, 기록하지 않아 일일이 기억할 수 없어서 많이 아쉽다. 다음 번엔 기도도 더 많이 준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싶고, 선교지에서의 상황을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또 언어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맘껏 전해주고 싶다.



유경하 (대학부)

(선언주 기자)

찬양 속 예배, 예배 속 찬양

이 누 리 (샌드벨 찬양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샌드벨 단원을 모집했었습니다. 인기가 이미 샌드벨 찬양멤버로 활동 중이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샌드벨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었습니다. '하고 싶다'를 넘어서 '당연히 해야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활동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열정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중학교로 올라가기 직전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샌드벨을 시작했습니다.

샌드벨을 하면서 주님께 뭘 영감들었乎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나 혼자자 아니라 여럿이서 합심해 다른 소리지나 한나의 소리가 하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점도 좋구요. 특히 찬양을 드림으로 예배에 감동을 주고, 받고,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샌드벨의 찬양을 듣고 성도의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양에 은혜 받아 감동을 느끼고 주님께 한발자국 더 나아갔다고 하시면서요. 남다른 감동이지요. 하지만 잘하라는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세속적인 마음으로 먼저 앞서갈 때가 있어 늘 회개하고 반성하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음악이 아니라 주님과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음악을 통해 말씀에 접근하고 있을 때는 걱정 또한 없습니다. 주님은 준비된 그릇을 늘 채워주신다 하셨는데, 준비되지 않은 조그만 마음으로 나오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힘든 점도 있습니다. 샌드벨이 보기에 있는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아도 육체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서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계속 땀을 흘렸다 땀났다 하는 행동은 역기를 들었다 났다 하는 것과 비슷해서, 가끔 성도들이 안쓰러워해서 땀을 들이보이고는 한결같이 "보기보다 무겁네"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과 힘든 점은 나의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생각보다 샌드벨이 힘들기 때문에 샌드벨에서 얼마 지내지 못하고 떠나는 신임 부원들을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 예수님은 나를 온전하게 영원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온전케 할 수 없으니깐요. 그래서 저는 예배가 그저 경건함과 형식 안에서 딱딱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부끄럼지나 믿음으로 편안하게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놓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배 때에 가장 크게 감동 받는 것은 아무래도 찬송이지요. 첫췌수 15년째 샌드벨에 몸담고 있다보니 저절로 찬양에 반응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 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설사 제가 샌드벨 단원이 아니더라도 찬양이 제 영혼을 깨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샌드벨 단원이 아니라 비종교로서 예배드릴 때의 제가 샌드벨 단원일 때의 저와 다른 사람은 아니니까요.

로마서를 공부하며

로마서를 배우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내 인간적인 생각 안에 가졌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의미는 내가 생각하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그 거대한 사랑을 확증시키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지 만민들을 주셨다는 의미,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다. 그것은 구약의 역사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이다.

처음에는 값없이 주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구원을 위해서는 성도로서의 믿음과 행위들이 요구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정말로 우리는 아무런 값없이 받았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증명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 초대교회 당시에 구원의 대가나 조건으로서 일반적으로 생각되던 율법이나 할례도 그 당시에는 없었다. 아브라함은 우상 만드는 자의 후손이었다. 그가 어떻게 여호와를 알았겠는가?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께 선택되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뛰어나거나 완벽하냐면 그것도 아니었다.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로 속였으며, 아들을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주셨으며 우리에게까지 그 구원의 빛이 비추지게 하셨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러한 주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감사를 올리게 할 뿐만 아니라 행위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 어그러졌던 모든 관계들까지 회복시킨다. 사람의 행위는 그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못된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어떤 공로도 없다. 또한 주의 은혜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당위성을 준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영생을 값없이 얻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권 에스더 (청년1부)

장학생 인터뷰 ⑥

천국꾼이란 '택함 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에 속한 것들과는 구분되게 살아가도록 택함 받은 사람들이 천국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랑부는 이름 그대로 주께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랑이 넘쳐 흐르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강하고 부유한 자보다는 약하고 어려운 자를 더 많이 사용하시고



이유미

사랑하셨듯이 사랑부 식구들도 겉보기엔 약자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함을 지녔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세계 새로운 삶을 주시고 바른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시련을 받으시더라도 많았지만, 결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저와 함께 해주시고 계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장엄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제 삶이 여러 영역에서 장애인과 만나고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므로, 저에게는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앞으로 천국갈 때까지의 계 기도제목을 드립니다.

이번 달 말씀으로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지칠만 계획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소리에다 먹여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나에게는 좋은 것을 배워서기 위해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시련을 주시며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보호합니다. 주님은 정말 멋집니다.

이유미(대학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갈 6:14).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인간이 보기에 의로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구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오직 십자가만이 모든 것이다. 십자가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대주제이다. 많은 설교자들이 주님의 윤리적 가르침이 복음의 전부가 될 말한다. 그리고 오늘 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설교한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주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설교한다면 인간사 제반의 문제들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삶이 공허해지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가르침 부분부분에 머무르지 말고 가르침 전체를 보면, 그 가르침은 꼭 지켜야 한다는 명제로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악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벗어나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십자가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겠는가? 이것은 십자가가 전부를 증명한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는지 생각해 보라. 그들은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을 전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산상수훈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십자가는 환영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도들과 제자들은 끊임없이 십자가만을 전하였다. 지금 어떻게 주의 제자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산상수훈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도 십자가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말씀이라는 말이다. 산상수훈으로는 우리의 죄가 씻겨질 수 없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원필)

구약성경

예수처럼 행하라(요일 2:3-6)

6교구 잠실 2-2구
구역장 황순란 집사

성경 본문을 읽은 후, 한 성도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그 성도는 4년 전 이웃과 싸워서 얼마 전까지 그 이웃을 미워했었다. 4년 동안 그 성도는 그 이웃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님의 강한 음성을 들었고, 말씀을 통해

그래야 한다는 것을 배웠지만 마음으로 인해 그럴 수 없어서 괴로웠다. 그러다가 얼마 전 그 이웃을 봤을 때 또 성령님에 감동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그 이웃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지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그 이웃을 본다. 그 성도는 "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4년 동안의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만 하고 진실로는 믿지 않는 자였습시다. 그리고 그 이웃도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니 이제 그 이웃이 내가 '주 안에' 있는 자인 줄을 알게 되었습시다"라고 했다. 여기에 그 성도는 "나는 근본적으로는 그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선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가 나를 움직이게 하셨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역장은 '예수님처럼 행하려면, 즉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간증한 성도는 자신을 포기하지 못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한 영혼을 4년 동안 방치해 두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을 포기하자 한 영혼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던 것이다. 구역장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에 한 성도는 '포기라는 말의 의미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를 어떻게 포기하라는 것이냐'고 묻자 여기저기서 '아냐, 모든 것이야' 하는 말이 되어 나왔다. 여기에 구역장은 여러 말씀을 근거로 들면서 가족, 재산, 생명 등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절뚝했던 성도가 '어렵다'면서 한숨을 쉬자 구역장이 자신도 포기하는 것이 어렵다고 고백하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 성령님께 의지할 때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하려고 하면 그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에게 적합하도록 포기하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는 목적을 상실하고 각자의 이득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예를 들어 단기 선교를 위해 학업이나 회사일, 가정일을 포기하는데 그에 대해 자신이 손해 보는 것을 따져보고 그 손해를 막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그러다 보면 단기선교는 포기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단기선교를 계획하게 된다. 혹은 회사나 학교에 합당한 변명을 만들기 위해 어떤 거짓된 증거를 하고 스스로 합리화 시키며 주를 위한 거짓이라고 말한다.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이러한 결과들이 생겨난다. 자 이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자. 완전히 포기하자. 그것이 예수님처럼 행하는 첫 걸음이다.

(권요복 기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이수희' 성도를 소개합니다



두 아이(유치부, 유아부)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다니는 선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여 교회에 나왔습니다. 친정 어른들이 절에 다녀서 교회 오는 것을 결정하기 쉽지 않았지만, 마음이 교회로 기울었고 교회에 오면 평안했습니다. 교회와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에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교회 가는 것을 막지 않아서 고맙고 나중에는 꼭 같이 오고 싶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아 어렵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그제 아이들 성경학교를 보내는데 유치부, 유아부 프로그램이 좋고, '새가족' 선생님들이 신구가 많고, 새신자들이 많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고 제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숙정 통신원)

병원에서 전도를 받고

충현 교회 어느 집사님의 병원 전도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어느 환우가 글을 보내왔다. 그 분은 이제 병상에서 세례도 받았고 꾸준한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는 그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 43:1).

몸이 되니 나도 볼치며 새로워지고 싶다. 그러나 실상 내 속내를 바라보면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도심 속에 매캐한 공해와도 같고 자동차 매연 같기도 하다. 벌써 나이가 스물 남기고 보니, 모든 지난날들의 생활상 앞에 나 스스로마저 고개가 저절로 떨거지었다. 술과 쾌락에 미쳐 살아온 인생.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실패와 좌절 앞에 부름을 끊었다. 자괴감에 빠져 술독에 내 몸과 영혼을 밀어 넣고 쾌락에 빠져, 그 속에서만 세상의 모든 사물을 바라보았다.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술과 영혼을 맛본 방탕한 생활 속에서 나의 육신과 영혼은 병들어 썩어갔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가족도 친구도 내 곁을 떠나버리고 남거전 것은 병든 몸뿐이었다. 사치병이라고도 불리는 '버거스'가 나의 병명이다. 말초신경 혈관이 막혀서 팔과 다리 썩어 녹아내리는 병이다. 치절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한 사람을 보내주셨다. 그 사람은 나약할 대로 나약했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나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었다. 요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며 미소를 되찾았고 정말 행복하다.

♫ 다음 주일 찬송

478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송은 1896년 윌리엄 오르코트 커닝(W. O. Cushing, 1823-1902) 목사에게 의해 작시되었다. 그는 성대에 이상이 생겨 말을 크게 할 수 없게 되자 강단을 떠나 병든 몸으로 모로마로 방황하지 않고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한 후 주님의 응답으로 300편에 이르는 영감받은 찬양시들을 작시하였다. 같은 해에 아이러 데이빌 생크(I. D. Sankey, 1840-1908)가 작곡하였다.

- 1절: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라 거기서 편안히 쉬리다
- 2절: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로 누리리라
- 3절: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고 고요한 세상 같기는듯한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 후렴: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누구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찬송은 4분음표가 한 마디에 6개가 있는 4분의 6박자 곡이다. 6박자의 곡은(8분의 6박자, 4분의 6박자...) 크게 두 박자로(셋씩 묶어서) 볼 수 있는데, 마치 잔잔한 파도가 치는 것처럼 리듬을 맞추어 부르면 음악이 아주 자연스러워지고 가사도 잘 전달 된다.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품에 안을 때와 같은 편안하고 따뜻한 안식이 느껴지는 찬송이다. (천영원원희)

새·가·족·을·함·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394	박정순	1 청년2과	김경순(1)	407	강병호	10 청년2과	박민우(17)	420	이은숙	14 청년2과	
395	최정순	1 청년2과	최정순(1)	408	김진희	10 청년2과	유유순(11)	421	김정영	15 청년2과	윤숙성(4)
396	오영재	2 소망부	오영재(2)	409	이한민	10 소망부	이은민(10)	422	김진영	15 청년2과	윤숙성(4)
397	모성우	4 청년2과	정종호(4)	410	이성진	12 청년2과	윤숙자(12)	423	허재성	16 청년2과	김희정(16)
398	이동욱	5 대학부	김순(5)	411	이종진	12 청년2과	윤숙자(12)	424	박종영	19 대학부	정경순(1)
399	이연순	5 청년2과	박순옥(17)	412	김재현	13 청년1부	이종민(11)	425	차석민	19 청년1부	이인광(7)
400	조정희	5 소망부	김희순(5)	413	박성옥	13 청년1부	문숙자(19)	426	이은상	19 대학부	이영숙(4)
401	강창배	5 청년2과	박순옥(17)	414	오영근	13 청년1부	송숙진(13)	427	배태봉	19 고동부	
402	권영숙	6 청년3과	김순임(6)	415	손순환	13 청년2과	조옥례(17)	428	김수현	19 고동부	신진걸(3)
403	권혜진	8 청년1부	박순진(8)	416	전지희	13 청년2과	노순옥(2)	429	이희정	19 고동부	이득혜(3)
404	김영우	9 청년2과	이현숙(7)	417	김창호	13 청년2부	박민숙(1)	430	사비	19 외선부	송남정(4)
405	노영희	10 청년2과	이정영(10)	418	차재훈	14 청년2부	홍기준(9)	431	김미영(19)	외선부	조영광(3)
406	이정숙	10 청년2과	이정영(10)	419	고근태	14 청년1부	이계민(2)	432	도다기(19)	외선부	박순민(17)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주인 잃은 십자가

김 운 섭 (집사, 초동부 교사)

감람산 기도마져 행방하는 불철적
싸늘한 입맞춤에 스승을 넘겨버린
은 삼십 움켜쥐고서 돌돌린 가토 유다

영문 밖 끌려가는 어린양의 지친 걸음
사형수 앞세우고 조롱하는 일출마다
돌려 선 저 무리속에 나 어찌 구경하나

내가 진 이 십자가 감당키 버거운데
육십억 적 마저도 마다 않고 짊어진
골고다 가파른 고개 오늘따라 아득한 길

하늘도 빛을 잃은 그 날의 그 치욕을
피 머금은 갑과 창, 파고드는 뼈속 아픔
십자가 매달린 예수 온 몸이 뒤틀린다

하늘을 우러르다 울부짖는 그 아픔
성스런 죽을 앞에 뉘 아니 숙연하리
으스스 찬바람 이는 주인 떠난 빈 십자가



성령의 생일

갈라디아서(Galatians)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난 후에 기록한 그의 최초의 사신서입니다. 그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안에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급하게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고, 그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간절함과 뜨거움 그리고 화교함을 강렬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뒤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문화나 종교 또는 전통 등이 복음을 위협하거나 왜곡시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회에 밀려들어난 것은 선교지의 문화나 종교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는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은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 때, 최고의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복음을 변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갈라디아서를 읽으실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세밀하게 관찰하시면서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실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는 갈라디아 곳곳에서 복음을 거스리는 유대-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신랄한 비난과 경고를 보냈고 있습니다. 그의 경고는 실로 갈라디아서 매섭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격렬하게 시위하는 듯한 비난과 경고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바울의 경고를 통해서 유대-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릇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깨닫고 나기 바랍니다(사도 바울의 경고는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또한 갈라디아서를 읽으실 때에는 바울이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을 변호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그가 복음에 대하여 깨닫기 전과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사항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제시하고,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의 실수를 예로 들면서 복음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유대-그리스도인이 가르치는 할례가 외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것 뿐 아니라, 바울은 구약의 아브라함은 예로 들어서 믿음으로 바림받은 의(義)를 제시하였고, 사라와 하건의 비유를 들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바울의 변증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정의와 기능 그리고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강원도 목사(출판권자)

다시 찾은 기회

김 현 아 (사관부 교사)

주일 아침, 교회로 가기 전 말고 있는 학생에게 전화를 했다. 한참의 신호 후 연결이 됐고, 어머니의 애타게 이름 부르며 설득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머니께 부탁해서 학생 귀에 수화기를 대고 "주일 아침이야, 빨리 준비하고 사랑부에서 만나자" 하고 몇 번이고 말해도 묵묵 부답이다. 학생의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병(침묵)이 시작되어 힘들 것 같다고 하셔서 다시 한번 부탁하고 수화기를 내렸다. 전날 저녁 밝은 목소리로 대답해 놓고서는 하룻밤 새 마음이 변하다니. 뭐라고 대답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또 침묵이 시작됐다.

애매 중 후속사 하는 마음에 자꾸 뒤만 보게 된다.
아, 하나니! 그 학생이 언제쯤이면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이 되어 주일을 기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전 13:11).

그리고 뜻밖의 일이 생겼다.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전화벨이 울렸는데 학생이었다.

'아침에 주일 학교에 가지 못해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전화하는 거입니다. 바귀 줄게요.'

언이 학생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떡해요? 못나가서.'
'괜찮아, 다음주에 오면 돼. 전화해줘서 고마워.'
'나, 다음주에 가도 되나요?'
불안한 듯 몇 번이고 묻는다.
'그럼, 다음주에 건강한 얼굴로 만나자.'

그리고는 잠깐 수화기 너머 학생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가족 중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학생을 통해 가족 모두 예수님을 믿게 하고,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전화를 내려 놓고도 흥분되고 기쁜 마음이었다. 침묵의 시간이 빨리 끝났다. '어떡해요.' 이 한마디면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도 이 모습 그대로, 이 상황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괜찮아' 하시면서 용납하여 주시고, 다스림의 회로로 주시길!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쫓사고로 온 몸에 화상을 입은 한 소녀의 글이 십자가를 잘 표현하고 있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글은 우리에게 왜 나의 십자가를 함께 지실 분이 예수님뿐인지를 잘 알게 합니다.

조금 눈물나는 날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에게 기대는 일이에요. 내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고 나눌 때, 서로 조언해주고, 중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이상의 무언가를 기대한다면 그런 고통 받았고 말해주고 싶어요.

언젠가 얼굴도 한 번 못 본 어떤 분이 제게 "자매의 십자가를 나누어지고 싶어요" 라고 말해주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몇 개월 뒤 수화 속 두드거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 속에서 그 말은 오히려 내 마음을 상처로 변해갔습니다. "자기가 뭘 안다고, 내 마음을 얼마나 안다고 감히 십자가를 나누어진다고 했지?" 하고 말입니다. 아픔은 정말 나 혼자만의 것이더라고요. 24시간 병실에 함께 있는 엄마도 내 아픔을 손뭉침으로 털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엄마의 소원이었을 텐데 절대로, 절대로 대신 아파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가슴아프지만, 너무 냉철한 것은 말이지만, 정말 인생은 혼자만의 것이예요. 그 어떤 가까운 사람도 대신 싸워줄 수 없어요.

사람에게 기대지 마세요. 은혜의 도가니처럼 하고 있는, 마치 자기가 세상의 아픈 이들을 다 안아줄 것처럼 말하는, 착하고, 믿음 좋아보이는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마세요. 서로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지만 절대로 그 앞에 엎어지진 마세요. 있잖아요, 우리의 아픔을 미안아 줄, 그 끝없는 정거장을 받아주실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나의 이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앞에 엎어지세요. 우리 그렇게 해요. 여기서 우리 함께 주 바라기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 완전히 감싸주며 사랑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와 똑같이, 아니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2000년 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편집)

